

2024 서울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

2024. 11. 04(MON) - 11. 10(SUN)
서울 KBS 아레나

SEOUL 3-CUSHION WORLD CUP 2024

주최  세계게롬당구연맹  아시아게롬당구연맹

주관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대헌당구연맹  서울특별시당구연맹

공익후원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KSPO

후원  한국게롬당구연맹  DYNALSPHERES  HANBAT  KELME  RASSON  CUESCO

 SILKROAD  하림  Dr.FORHAIR  CEPHAS  universal  JBS  SM  HUBRIS  KNB  상래환  TAURUS

 classone  SCOP  FIVE&SIX  GORINA  VECTOR

Seoulsports SPORTS·SEOUL·CULTURE 2024 11+12 No.392



서울스포츠
SPORTS SEOUL CULTURE

스포츠와 함께 떠나는 건강한 여행

9 772733 632001
ISSN 2733-6328

11+12
2024 No.392

눈부신 하얀 세상 속에서
추위도 잊고 즐기는 겨울 스포츠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즐거울 거예요!

운동을 하는 서울시민들의 인증 사진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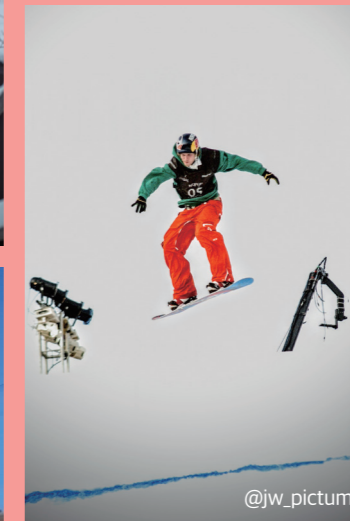
다음 1+2월호 주제는 '실내 스포츠'입니다. 실내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이벤트 안내

참여 방법 본인 인스타그램 채널에 필수 해시태그(#서울스포츠오하운 #서울스포츠이벤트)를 달고 운동 인증 사진을 올려 주세요.

참여 기간 12월 23일(월)까지

당첨 선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1잔





cover story

여행과 운동을 동시에 즐기는 스포츠케이
 션(Sportscaion)이 이색적인 여가 트렌드
 로 급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휴식이나
 관광을 넘어서, 여행 중에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며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 06 스포츠가 있는 풍경**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2024 WTA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
- 12 요즘, 스포츠**
스포츠케이션
① 여행과 운동의 만남. 스포츠케이션
② 휴가지에서 운동을, 운동하며 휴가를
③ 겨울 스포츠케이션을 준비하는 사람들
- 22 믿고 즐기는 스포츠**
미국에서 온 리아 씨
“밀고 당기는 씨름의 반전 매력에 빠졌어요”
- 26 건강한 서울**
2024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 30 인플루언서와 함께**
크리에이터
김영수 작가와 함께!
- 34 운동으로 만난 우리**
서울시청 펜싱팀과 만난
펜싱 동호회 칼잡이길드
- 40 뭉치면 한다**
서울증산초등학교
피구팀
- 44 이슈 공감**
스포츠와 공정성

- 46 스포츠와 ESG**
환경 보호를 위한
스포츠계의 노력
- 48 함께하는 체육회**
강남구체육회
- 50 우리 동네 체육 대장**
강남구체스연맹
- 54 회원종목단체장을 만나다**
서울특별시 수영연맹
동미숙 회장
- 56 SSC & SSAD 뉴스**



서울철인3중협회 소속 서동혁 선수가 수영 종목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레슬링 남자 고등부 그레코로만형 67kg급에 출전한 서울체고 정민겸 선수

제 1 0 5 회 전 국 체 전

서울특별시 종합 3위

지난 10월 17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일주일간의 대장정 끝에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는 48개 종목에 2,10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107개, 은메달 95개, 동메달 118개를 확보하며 종합 3위를 차지했다. 특히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서울시 선수단 임시현 양궁선수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사진 김수한, 서승환

하키 여자 일반부에서 우승한 한국체육대학교 선수들이 준준결승에서 부산 KT를 상대로 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럭비 남자 고등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배재고등학교는 인천기계공고의 준준결승 경기에서 55:3으로 승리했다.

스포츠가 있는 풍경





축구 남자 고등부에서 우승한 영등포공고가 준준결승에서 만난 울산 현대고를 상대로 4:2로 승리했다.



통영체육관에서 열린 당구 캐롬1쿠션에서 서울시청 조명우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서울 신정고등학교는 소프트볼 고등부 결승전에서 일산국제컨벤션고를 상대로 9:0 콜드게임을 따내며 우승을 차지했다.



농구 여자 일반부에서 우승한 서대문구청은 광주대학교와의 준준결승 경기에서 60:37으로 승리했다.



경기고등학교 노민규 선수는 수영 남자 고등부에서 5개(금4, 은1)의 메달을 획득했다.



2024 WTA 코리아 오픈이 개최된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

2024년 WTA 코리아 오픈 테니스 대회가 지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WTA 500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주목받는 대회 중 하나다. 단식 우승은 베아트리스 아다드 마이아(브라질) 선수가, 복식 우승은 류드밀라 삼소노바(러시아)-니콜 멜리차르 마르티네스(미국) 조가 차지했다.

사진: 서승환



류드밀라 삼소노바(러시아) 선수가 복식 우승을 향한 마지막 공을 넘기고 있다.



베아트리스 아다드 마이아(브라질) 선수가 스매시를 날리며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다리아 카사트키나(러시아) 선수가 공을 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다.

‘2024 WTA 코리아 오픈 테니스대회’

국내 유일 국제 여자프로테니스 정규투어 성료



복식 준우승을 차지한 가토 미유(일본)·장슈아이(중국)조

sports

운동과 휴가라는 서로 상반된 두 단어가 공존하게 됐다. '스포츠케이션'은 새로운 휴가 트렌드로 스포츠(Sports)와 휴가(Vacation)의 합성어다. 이들은 운동을 직접 하기 위해 휴가를 가기도 하고, 응원하는 스포츠팀의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우리 주위엔 자신도 모르게 이미 스포츠케이션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휴가지에서 러닝을 하거나, 호텔에서 요가를 하는 것도 일종의 스포츠케이션이니 말이다.

스포츠케이션과 마음의 거리를 좁혔다면 이제 남은 건 즐기는 것뿐이다. 스포츠케이션이 왜 유행하고,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여행을 떠나는 새로운 방법,
스포츠케이션

오늘, 스포츠

스포츠케이션 2024 NOV + DEC

vacation

여행과 운동의 만남.

스포츠케이션 휴가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식



요즘, 스포츠

여행과 운동을 동시에 즐기는 스포츠케이션(Sportscation)이 이색적인 여가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스포츠케이션은 스포츠(Sports)와 휴가(Vacation)를 결합한 개념으로, 스포츠 활동을 중심으로 한 여행을 뜻한다. 과거에는 레저스포츠 중심의 관광활동, 스포츠 관광, 스포츠 투어리즘 등 다양한 유사 용어가 우리의 입에 오르내렸으나 이제는 스포츠케이션이 대세다.

글 황선환



스포츠케이션이 대세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스포츠케이션은 단순한 휴식이나 관광을 넘어서, 여행 중에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며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미라클모닝(이른 아침 자기 계발), 그리고 #헬시플레저(Healthy+Pleasure_건강을 즐겁게 관리)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건강 및 자기 관리에 대한 키워드가 부상하며 스포츠케이션이 트렌드가 되었다. 특히 휴가 기간 스포츠를 통해 몸을 움직이고, 액티브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번개 러닝 크루부터 새로운 박스를 찾아 떠나는 드랩인 크로스핏터, 전국 팔도 명산을 돌아다니는 중장년층, 자전거에 짐을 싣고 다니며 캠핑하는 사람들, 소문난 요가 스튜디오들이 밀집된 인도에서의 수련, 테강스(테니스+바캉스), 건강과 환경보호 운동의 플로빙(Ploating_프리다이버들이 해안가와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까지 그 종류와 범위가 무척 다양하다. 그렇다면, 스포츠케이션이 이렇게 대세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전 세계적으로 '액티브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트니스, 요가, 하이킹, 사이클링, 서핑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스포츠케이션은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여행과 결합한 것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운동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경향이 커졌다.

둘째, 과거에는 휴가라 하면 휴양지에서 편히 쉬는 것을 주로 떠올렸지만, 이제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액티브 여행지가 인기이다. 스포츠를 테마로 한 여행지들이 증가하면서, 여행자들은 특정 스포츠를 체험하거나 관람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찾게 된다. 예를 들어, 골프, 스키, 다이빙, 서핑과 같은 특정 스포츠에 특화된 여행



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특성을 살린 스포츠 활동과 관광이 결합된 것이다.

셋째, 스포츠케이션은 SNS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자신이 즐기는 스포츠 활동이나 특별한 장소에서의 액티비티를 공유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이 비주얼 중심의 플랫폼에서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콘텐츠가 널리 퍼지며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됐다. 해시태그를 마음껏 열거하기에 안성맞춤 아이템으로써 손상이 없는 놀잇감이 된 것이다.

넷째, 올림픽이나 월드컵, 그랜드슬램 테니스 대회 등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는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스포츠케이션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다. 스포츠 관람과 관광이 결합된 형태는 스포츠 팬들에게 더한 매력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새로운 여행 문화로 자리 잡는데 손색이 없었다. 메가 이벤트 이외에도 축제와 연동된 스포츠케이션 상품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스포츠케이션은 단순한 휴가의 개념을 넘어선, 건강과 활동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받아들여졌다. 나아가 단순한 여행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3)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2030 비율은 50.85%에 이른다. 먹는 것만큼 쉬는 것, 운동하는 것 또한 '#진심인편'인 것처럼 여행도 스포츠가 중심이 된 것이다.

서얼스포츠 2024 NOV + DEC

무궁무진한 스포츠케이션 콘텐츠

스포츠의 형태는 개인이 실제로 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참여와 타인이나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간접 참여로 구분된다. 여행의 형태는 관광 여행, 모험 여행, 휴양 여행, 웰니스 여행, 스포츠 여행, 자유 여행, 패키지 여행, 에코 투어리즘, 크루즈 여행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분류된다. 스포츠의 형태와 여행의 형태가 다양한 것만큼 스포츠케이션의 시장은 매우 유망하며 성장 콘텐츠도 무궁무진하다. 국내 한 여행사에 따르면 사내 여행 공모전 수상작이자 미식축구 직관 상품인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직관 여행은 출시 직후 뜨거운 반응으로 조기 마감되었으며, 지난해에 이은 미국 프로농구(NBA) 직관 여행도 완판 행렬을 보이면서 현재는 예약 대기만 가능하다고 한다(여행신문, 2024.08.22). 스포츠 직관 상품의 인기 요인은 분야별 전문가와 전 일정을 함께한다는 점으로 꼽았으며, 스포츠용품의 명가 WILSON과 협업해 스페셜 기프트를 제공한다고 한다.

‘2022 스포츠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용품업·스포츠시설업·스포츠서비스업 모두 약 4%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3년 상반기 백화점의 스포츠 상품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고 보고됐다. 특히 스포츠 브랜드들이 기존 매장을 체험형 매장으로 바꾸거나 브랜드와 관계없이 스포츠용품을 한데 모은 편집숍 등을 열고, 다양한 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스포츠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발 빠르게 반영한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호텔업계는 라운딩과 사우나 등이 포함된 골프 패키지나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

는 테니스 패키지, 모닝 요가, 트레킹, 승마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스포츠케이션 상품을 판매한다. 또한 스포츠케이션을 계획 중이라면 참고할 수 있는 앱과 웹사이트들에서 보다 다채로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업들은 맞춤형 스포츠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스포츠 활동에 맞춰 여행 일정을 설계해주는 등 스포츠케이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브랜드들은 특정 지역과 협력해 스포츠 이벤트나 트레이닝 캠프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스포츠케이션은 단순한 일시적인 여행 트렌드가 아니라 건강과 여가, 스포츠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새로운 여행 패러다임이다.

건강 및 웰니스 트렌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SNS의 확산, 안전한 여행에 대한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스포츠케이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케이션의 진심은 어디로 통하는가?

스포츠케이션 상품은 국내와 해외를 넘나들며 성행하고 있다. 서핑, 스쿠버다이빙 등 국내 해양 스포츠 명소가 모인 강원도의 서퍼 비치, 농구와 여행과 휴가를 결합한 강진, 승마·트레킹·패러글라이딩까지 연결 지은 충북 등 땅, 물, 하늘에서 즐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들이 매력을 발산한다. 하와이 호놀룰루, 호주 시드니 등 육상 선수 출신 코치와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 골프·테니스·경마·축구 등 스포츠 종주국인 영국의 4대 직관 등 차별화된 여행 상품은 늘어나는 스포츠케이션의 수요에 반응한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은 스포츠케이션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행객들이 자신의 스포츠 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스포츠케이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스포츠케이션을 즐기는 모습을 공유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라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오운완, #갯생, #미라클모닝, #헬시플레저, #스포츠케이션에진심과 같은 해시태그의 행렬은 SNS로 확산되며, ‘시그니처(Signature)’에서 다시 ‘레어템(Rare Item)’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스포츠케이션의 진심이 공유된다. 이로 인해 스포츠케이션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장기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글을 쓴 황선환은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스포츠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국민이 여가를 통해 행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휴가지에서 운동을, 운동하며 휴가를

호텔 헬스장을 찾고, 대자연 속 레포츠를 즐기는 것. 낯선 여행법은 아니다. 다만 스포츠(운동)가 여행의 일부가 아닌 여행의 중심이 됐다는 점에서 스포츠케이션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휴가에도, 운동에도 진심인 이들을 위한 스포츠케이션 프로그램을 모았다.

글. 박소윤

스포츠, 그 자체로 여행의 목적이 되다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득근(근육을 얻다) #갓생(God+生). 요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시태그다. 올해 기준 오운완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만 860만여 건에 달할 정도다.

운동하는 20~30대가 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운동을 의무감에 하는 활동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비율은 20대 57.6%, 30대 64.7%로 나타났다.

휴가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튼튼이 운동한다.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숙박업계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연계한 스포츠케이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맞춤형 웰니스, 야외 구기 종목, 요가부터 승강스(승마+바캉스), 골캉스(골프+바캉스) 등 이색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패키지까지 선택의 폭도 넓다.

원뎀 그랜드 부산의 '웰니스 클럽(Wellness club)'은 퍼스널 트레이닝, GX 스튜디오, 스크린 골프,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실내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릴렉서리 프로그램이다. 부산 남항대교의 파노라마 오션뷰를 눈에 담으며 몸과 마음을 환기하기 좋다. 롯데호텔 제주는 야외 테니스장에 피클볼 전용 코트 2면을 설치했다.

탁구·테니스·배드민턴의 요소가 합쳐진 피클볼은 1965년 미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뽀얀 스포츠에 질렸다면 골든씨들 리조트 앤 풀빌라의 '골든씨들 승마클럽'을 눈여겨보자. 고급스러운 클럽하우스에서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국내 각 지자체도 스포츠케이션 상품 개발에 뛰어들었다.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야외에서 '쇠질(근력 운동)'할 수 있는 강원 강릉 강문해변 머슬비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머슬존 등은 지난 여름 웰스인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전남 강진은 농구와 여행, 휴가를 결합한 전국 3대3 농구대회를 개최했다.



“손흥민 보러 영국 간다” 2030 홀린 취향 저격 여행

하늘길이 열리며 '원정 스포츠케이션'을 떠나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2020년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축구팬 10명 중 4명(44.6%)은 국내의 축구 경기 관람을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현지에서 직접 관람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연다. 구단 기념품숍에서 유니폼을 구입하고, 최애 선수의 단골 식당을 찾아 인증샷을 남긴다.

지난 8월 2024-2025시즌 EPL이 개막하면서 축구 직관과 여행을 묶은 패키지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는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직관 상품을 선보였다.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경기를 관람하고 런던아이, 대영박물관 등 런던 명소와 인근 도시를 함께 둘러보는 일정이다.

하나투어 역시 토트넘 경기 관람과 런던, 파리 등 유럽 핵심 도시를 여행하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국내 여행업계 최초의 미식축구 직관 상품인 미국프로풋볼리그(NFL) 직관 여행도 출시했다. 국내 최대 미식축구 유투버 미축남의 해설과 함께 LA 램스, LA 차저스,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 등 NFL 경기를 직관한다. 미국프로농구(NBA) 프리시즌을 맞아 전문가와 함께 보스턴과 덴버의 경기를 관람하고, 두바이/아부다비 관광을 진행하는 상품은 완판을 기록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야구팬을 겨냥한 테마 상품도 있다. 오는 11월 15일 대만 타이베이 돔에서 열리는 프리미어12 한일전을 직관하는 패키지를 교원투어 여행이지가 선보인다. 올해 국내 프로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의 뜨거운 열기를 해외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타이베이 핵심 관광지 일정도 포함되며, 경기가 열리는 날은 시작 전까지 자유일정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국내에선 광주광역시가 대표적인 스포츠관광 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7년 만에 프로야구 정규리그에서 우승한 기아타이거즈, 지난해 K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킨 광주FC 등 강력한 지역 연고 스포츠팀을 품은 도시다. 광주관광공사는 야구와 축구 입장권을 포함한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스포츠 경기를 직관한 후 하루 더 머물며 지역 명소를 둘러보는 코스로, 광주의 숨은 매력을 느끼기에 제격이다.

한층 세심한 취향의 소유자라면 인터파크 투어의 해외 패키지 서비스 '홀릭'에 주목할 것. '당신이 열광하는 것을 위한 여행'이라는 모토 아래 마라톤 대회, 모터스

포츠, 캠핑 등 다채로운 취향을 담은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암벽 황제 김자인 선수와 락클라이밍의 성지 '크라비'를 방문하고, 대만 야구 여행에 치어리더 안지현이 동행하는 등 참신한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스포츠케이션 시장 커진다

스포츠에 열광하는 트렌드는 유통업계의 풍경도 바꿨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지난해 7월 고프코어(일상복과 자연스럽게 매치하는 아웃도어 패션), 캠핑, 스포츠 브랜드로 스포츠·아웃도어 전문관을 채웠다. 영국 접이식 자전거 '브롬톤'의 의류 매장을 입점하고, MZ 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인 아크테릭스, 살로몬 등 트렌디한 브랜드를 한데 모았다. 효과는 특독했다. 100일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은 2023년 상반기 스포츠 상품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고 밝혔다.



글을 쓴 박소윤은 <한국경제매거진> 여행 기자다. 국내외 보석 같은 여행지를 소개하는 SRT 차내지 <SRT매거진> 에디터로 활동 중이다.

겨울아 반갑다!

남들이 더운 여름날 못 버티고 휴가 다닐 때, 묵묵히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겨울 스포츠 마니아들이다. 꼬박 1년을 기다려 겨울 스포츠케이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겨울 스포츠 종목과 장소를 알아보자.

글. 최성훈



FISU
WORLD
UNIVERSITY
GAMES
WINTER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출처: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홈페이지)

지친 삶 속 활력

2024-2025 스키·스노보드 통합 시즌권 판매가 시작됐다. 이 중엔 벌써 1차 판매가 마감이 된 곳도 있을 정도로 겨울 스포츠를 기다려온 사람들은 많다. 특히 조기 시즌권은 비교적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겨울 스포츠 마니아들은 이때부터 시즌을 본격적으로 겨울 스포츠케이션을 준비하곤 한다.

겨울 휴가 중에 스키나 스노보드 등 스포츠를 목적으로 떠나는 여행이나 관광을 겨울 스포츠케이션의 한 종류로 생각하면 된다. 물론 빙상이나 아이스하키, 컬링 등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도 겨울 스포츠케이션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다. 여름휴가에 비해서 겨울 휴가는 짧거나 없는 곳이 많아서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하게 되는데 가족이 있는 경우엔 아이들의 겨울 방학을 체크해야 한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방학 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이나 겨울 스포츠케이션에 대한 동의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난 겨울 시즌의 추억과 곧 다가올 겨울 스포츠케이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기간은 바쁜 생활에 지친 자신에게 삶의 활력과 리듬감을 부여해 준다. 당장 집 근처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등록해서 달리기와 하고 스트레칭을 해보자. 기다리던 겨울 스포츠케이션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말이다.

겨울 스포츠케이션

본격적으로 겨울에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목과 장소, 그리고 휴가 동안 관람할 수 있는 겨울 스포츠 대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겨울 스포츠케이션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엔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이 가장 많다. 이들을 위한 24-25 스키·스노보드 국제 및 국내 스키 대회가 12월부터 3월까지 펼쳐진다. 12월에는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극동컵(FEC) 크로스컨트리 경기와 국제스키연맹(FIS)에서 주최하는 대관령컵 알파인 스키 대회(FIS)가 개최된다. 특히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건립한 스키점프대와 바이애슬론경기장, 대관령스키역사관 등이 있고 겨울 스포츠관광으로 추천할 만한 장소이다.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되는 1월에는 알펜시아, 강촌, 용평리조트에서 알파인 스키 경기와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 휘닉스와 오투리조트에서 스노보드 대회, 토리노에서 2025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열린다. 휴가 막바지인 2월에는 가장 많은 대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특히, 스키점프를 제외한 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경기가 동계체전 기간 동안 개최된다. 봄이 시작되는 3월에는 지산컵, 중별 선수권대회, 평창컵 등의 알파인 스키대회가 진행된다. 정상급 선수들이 펼치는 대회를 현장에서 관람하는 건 그동안 연습해온 기술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대회를 보고 즐긴 다음 타는 스키와 스노보드는 그동안과는 다른 느낌을 줄 것이다.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같은 겨울 스포츠도 빼놓을 수 없다. 쇼트트랙을 연상하게 만드는 빙상,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 단일팀으로 출전해서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아이스하키, '영미 신드롬'으로 유명한 컬링 등 추운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색다른 겨울 스포츠케이션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2월																												
1월																												
2월																												
3월																												

24-25 스키·스노보드 국제 및 국내대회 일정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출처: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2025년 2월에 개최되는 106회 전국동계체전에서는 스키와 스노보드, 컬링 등을 포함해 바이애슬론, 산악, 루지 등 평소 접하지 못하던 종목들을 관람할 수 있으니 겨울 스포츠케이션의 마지막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추천한다.

삶의 경험치를 늘려보자

겨울 스포츠케이션을 보다 의미 있게 즐기고 싶다면 익숙한 활동보다는 낯선 장소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체험하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한다. 예를 들면, 리조트에만 머물지 말고 리조트 주변에 있는 지역 마을

이나 시장을 방문하여 지역 특산물을 사보고 시장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삶의 경험치를 넓힐 수 있다. 다리가 아플 정도로 스키를 탔다면 슬로프에만 머물지 않고 과감하게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해도 좋다. 계획에 없던 보강운동도 해보고 리조트 주변을 달려보며 몰랐던 경치를 구경해보자. 저녁에는 곤돌라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서 수목화에 담긴 것 같은 산등성이와 골짜기를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글을 쓴 최성훈은 울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생활체육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여기레크리에이션 연구와 스포츠관광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겨울 스포츠케이션을 준비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이로 일하고 있는 리아 씨는 소문난 운동러다. 이런 그녀가 요즘 빠진 운동은 다른 아닌 씨름. 밀고 당기는 씨름의 반전 매력에 반했다는 리아 씨와 모래판에 들어가 보자.

글. 임채홍 사진·영상. 신현균

미국에서 온 리아 씨 “밀고 당기는 씨름의 반전 매력에 빠졌어요”

밀고 줄기는 스포츠

아직 여름을 못 벗어났던 9월, 서울송곡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미국에서 온 리아(Leah)씨를 만났다. 그녀가 속해있는 서울 씨름동호회는 2주에 1번씩 주말에 모여 연습을 한다. 건강한 체격과 사람 좋은 인상을 가진 리아 씨의 등장만으로 체육관의 에너지는 넘쳐흘렀다.

“저는 미국에서 온 리아라고 합니다. 2017년에 처음 한국에 왔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은 씨름의 매력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K-콘텐츠로 시작된 씨름

평소 자전거, 크로스핏은 물론이고 주말엔 스파르탄 레이스(장애물 경주)에 참가할 정도로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리아 씨. 하지만 지금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바로 씨름이라고 한다.

“예전에 씨름을 다룬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원래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씨름은 시작한 순간부터 마음에 들 정도로 재밌었어요.”



“ 씨름만이 주는 건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엔 어려웠던 기술도 연습을 통해 실전에서 쓸 수 있게 됐을 때의 뿌듯함도 좋고요. 평소에 받았던 스트레스도 모래판에서 털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

서울스포츠 2024 NOV + DEC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고 즐기는 스포츠

현재 리아 씨가 씨름을 즐길 수 있는 건 서울씨름동호회의 역할이 크다. 2012년부터 꾸준히 이어온 서울씨름동호회는 모래판을 접하기 어려운 일반인도 씨름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관(모래판)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씨름동호회 회원들과 2주에 1번씩 만나서 2시간 정도 연습하고 있어요. 워낙 씨름을 좋아하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항상 즐겁게 운동할 수 있어요. 특히 이선우 감독님이 많은 걸 알려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임은 러닝과 몸풀기를 시작으로 기술 훈련과 연습 시합이 이어진다. 오늘 리아 씨가 연습할 기술은 엉덩배지기. 몸을 틀어 엉덩이를 상대의 다리 사이로 밀어 넣어 상대를 넘기는 기술이다.

“저는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배울 기술들이 많아요. 하지만 상대를 들어 올려서 뒤집는 기술이라면 모두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재밌게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아 씨는 올해 5월, 울산 울주군에서 열렸던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씨름부에 출전하기도 했다. 당시엔 아직 초보였지만 앞으로 열릴 씨름 대회에 또다시 출전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처음 나갔던 대회였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지만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씨름을 즐겼던 현장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씨름의 반전 매력

씨름은 힘만 있어선 이길 수 없다. 살바를 쥐는 방법부터 자세, 상대와의 심리전, 기술, 그리고 힘까지 더해져야 모래판에 남아있을 수 있다.

“항상 살바를 잡고 있어야 해서 강한 손목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상황에 맞추어 밀고 당길 줄 알아야 해요. 이렇게 상반된 두 기술을 잘 써야 하는 게 씨름이 가진 반전 매력이지요. 단순히 힘만 세다고 이기는 종목이 아니에요.”

리아 씨는 씨름을 하다 보면 팔, 다리, 등 근육을 골고루 쓰게 되어 건강에도 좋다고 전했다. 실제로 연습을 계속하다 보니

뼈와 근육이 강해져서 이전보다 충격에 더 잘 버티게 됐다고도 자랑스럽게 말했다.

“씨름만이 주는 건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엔 어려웠던 기술도 연습을 통해 실전에서 쓸 수 있게 됐을 때의 뿌듯함도 좋고요. 평소에 받았던 스트레스도 모래판에서 털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 돌아가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권할 정도로 씨름이 재밌다는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씨름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씨름은 한국의 전통이 담긴 독특한 운동이에요. 다른 나라에선 경험할 수 없다는 유니크함도 가지고 있죠. 제가 느낀 씨름의 매력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같이 즐기고 싶어요.”



서울스포츠 2024 NOV + DEC

리아 씨와 함께 서울 맛집을 누벼보자!

사진 ©Pixabay

텍사스데브라질

“이곳에선 AYCE(All You Can Eat: 뷔페식의) 스테이크가 제공되는데 맛이 일품입니다. 스테이크를 원하는 정도로 익힐 수 있고 특히 빵이 놀라울 정도로 맛있습니다.”

피치그레이

“치치고 힘들 때, 휴식을 위해서 자주 찾는 곳입니다. 디저트 카페지만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수플레 팬케이크와 그림을 즐기기도 좋습니다.”

브라이리퍼블릭푸드

“미트 파이로 유명한 이곳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매장 이층에 들어간 브라이는 남아프리카식 바비큐 요리로 곧 추워질 날 씨와 어울리는 완벽한 메뉴입니다.”

신미경정통춘천닭갈비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닭갈비 매장입니다. 애피타이저로 전이 나오는 게 특징이며 초벌된 닭갈비를 치즈와 함께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아게레로

“저는 멕시코 음식이 그리우면 이 식당으로 가곤 합니다. 특히 셰프님이 멕시코에서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모든 음식에서 멕시코 현지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힘과 기술, 전략이 포인트
**‘2024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전 세계 50개국 38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2024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2024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물론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며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던 스포츠클라이밍 현장을 돌아본다.

글. 임재홍 사진. 서울특별시체육회

건강한 서울

서울스포츠 2024 NOV + DEC



2024 시즌 랭킹 우승자를 정한다!

스포츠클라이밍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며 관심과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체육회는 국내에서 권위 있는 스포츠클라이밍 국제 대회 개최해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자 '2024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올림픽'을 주관하게 됐다. 대한산악연맹과 IFSC(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산악연맹이 공동주관한 이번 대회에선 남녀 리드, 볼더링, 스피드 세 가지 종목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의 성적으로 2024 시즌 랭킹 우승자가 정해지는 만큼, 선수들은 물론 관객들의 몰입도 역시 최고조를 달렸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서울시의 스포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젊은 세대의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홍보 효과까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드, 볼더링, 스피드

스포츠클라이밍은 암벽등반이 지니고 있는 스포츠적인 요소를 별개의 장르로 독립시킨 클라이밍의 한 형식이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실내외의 벽이나, 볼더 등을 무대로 기량을 겨루는 등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선 남녀 리드, 볼더링, 스피드 세 종류의 경기가 진행됐다. 리드는 로프를 이용해 높은 벽을 올라가는 방식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누가 더 높이 오르는지 겨루는 종목이다. 기술적, 전략적 요소가 중요하며 선수마다 코스를 어떻게 분석하고 진행하는지를 보는 것이 포인트다. 볼더링은 4-5미터 높이의 여러 코스를 안전벨트와 로프 없이 다양한 기술과 힘을 이용해 오르는 종목으로 해결한 코스와 시도 횟수를 종합해 순위를 겨루게 된다. 마치 퍼즐을 풀 듯 제시된 코스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근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



나라 창의력을 발휘하는 선수들의 '뇌지킴'을 확인할 수 있다. 스피드는 안전벨트에 로프를 묶고 15미터 벽을 가장 빠르게 오르는 선수가 우승하는 종목이다. 말 그대로 속도가 중요한 만큼, 선수들의 폭발적인 근력과 피지컬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스포츠클라이밍은 다양한 기술을 요구한다. 균형, 체중 이동, 그립 잡기, 발의 위치 선정 등 다양한 요소가 중요하며 각 클라이밍 루트(코스)마다 클라이머는 코스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스포츠클라이밍의 매력이다.

'2024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성료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2024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에서 빛났던 한국 남자 스포츠클라이밍의 간판 이도현 선수다. 이도현 선수는 볼더링 남자부 금메달에 이어 리드 남자부 은메달을 차지하며 대회에서 두 차례나 시상대에 올랐다. 이도현

선수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서울 월드컵을 통해 아쉬움을 씻어내 좋다"라며 "올해 마무리를 잘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잘 보완해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전했다. 여자부 서채현 선수는 올해 월드컵 시즌 동안 여자 리드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했지만, 이번 서울 대회에서 아쉽게 여자 리드 결승에서 4위를 기록했다. 스피드에서는 아쉽게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정지민 선수가 이번 대회를 끝으로 2024 시즌 종합 랭킹 3위를 확정지었다. 한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가 스피드 종목에서 월드컵 종합 랭킹 3위 안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산악연맹 손중호 회장은 "2024 파리올림픽에 이어 2024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2025년에도 세계선수권 대회 개최와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r e k k i n g



이포털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어느덧 선선해진 9월의 마지막, 김영수 크리에이터와 강북구걷기협회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백범광장에 모였다. 도심 속 한강과 명산을 따라 걸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한강명산트레킹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글 임재홍, 사진 황지현, 영상 서울특별시체육회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k i n g

크리에이터 김영수 작가와 함께! 도심 속 한강과 명산을 느낄 수 있는 한강명산트레킹

한강명산트레킹

지난 9월 29일 백범광장에는 6차 한강명산트레킹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시민들이 모였다. 한강명산트레킹은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생활체육 참여 프로그램으로 서울에 있는 명산을 선별하여 서울 시민들이 트레킹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은 일일선생님 김영수 크리에이터와 강북구걷기협회(이하 협회) 김준기 회장을 비롯한 회원 22명이 함께 트레킹에 나섰다.

“오늘 한강명산트레킹 코스는 남산공원 백범광장에서 시작해서 소나무성곽길을 지나 장충단공원에서 마무리됩니다. 약 7km 정도로 코스가 길진 않지만 중간중간 경사나 계단이 있으니 무리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페이스 조절하시면서 이동하세요.” 스트레칭이 끝난 후, 김영수 크리에이터의 코스 안내와 함께 시작된 6차 한강명산트레킹. 주말 이른 아침에도 협회 회원들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다.

걷기에 숨겨진 과학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하며 김영수 크리에이터는 협회원들에게 케이던스(Cadence_일정 시간 동안 발이 땅에 몇 번 닿았는지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평소에도 걸을 때 약간 리듬감을 주는 게 좋아요. 내 발이 1분 동안 걸



오늘의 트레킹 선생님 '김영수 크리에이터'

김영수 크리에이터는 23만 명의 구독자를 사로잡은 유튜브 채널 '김영수 tv 여행과 산행'을 운영하며 우리나라의 숨겨진 여행지와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여행과 관련된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돌레돌레 트레킹' 책도 내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를 알리고 있다. 6차 한강명산트레킹에 참여한 그는 “국내에도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정말 좋은 트레킹 코스들이 많다”라며 “이번 한강명산트레킹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강북구걷기협회 분들과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전했다.



서울스�포츠 2024 NOV + DEC



으면서 땅에 닿는 횡수를 케이던스라고 하는데 110~130 정도가 적당해요”라며 “이 수치는 협회원님들이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나 휴대폰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앞으로 의식하고 걸으시면 발목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라고 전했다.

평소 오래 걷거나 무리하면 발목이 안 좋아서 고민이라는 이홍순 협회원의 말에 김영수 크리에이터는 설명을 이어갔다. “아마 케이던스가 낮아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걸을 때 지면에 발이 오래 머문다는 뜻이고 이런 걸음을 계속하시면 발목과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거죠.”

단순한 걷기에도 과학이 숨어있다는 사실에 협회원들은 서로의 발걸음을 비교하며 트레킹을 계속했다. 2년째 협회에서 걷기 모임에 참석 중이라는 이홍순 회원은 걷기를 통해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졌다고 전했다. “저는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격한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보니 걷기를 시작하게 됐죠. 협회를 통해 같이 걸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친구도 만들면서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곳곳에 숨겨진 유물들

“여기는 러너(Runner)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남산 순환로예요. 가을에 단풍으로 길이 물들면 트레킹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

이 보실 수 있어요.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곳입니다.” 국내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는 김영수 크리에이터. 그는 “가끔 그저 자연일 뿐인데 큰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풍경을 보기 위해 걸으며 일상에 쌓인 근심을 잠재웠기 때문에 자연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어서 더 감동을 느끼는 거죠”라며 트레킹만이 가진 매력을 전했다.

어느덧 남산공원 정상에 찍고 내려가는 도중, 코스에 있던 한양도성의 각자성석을 보고 김영수 크리에이터의 역사 강의가 펼쳐졌다. “한양도성의 각자성석은 조선시대에 서울 4개의 산을 이어서 쌓은 산성이예요. 재밌는 건 산성의 길이가 18.6km인데 구간을 나누어서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맡겼어요. 이런 방식으로 97일에 걸쳐 빠르게 완성했는데도 굉장히 견고하게 쌓였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도성 관리의 철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산성을 지나 어느덧 트레킹 코스 중반을 돌파한 김영수 크리에이터와 협회원들. 박손주 협회원은 벌써 트레킹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평소 직장을 다니다 보니 운동할 시간이 없어 걷기를 시작했어요. 같이 걷다 보니 협회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삶이 다채로워졌어요. 오늘 트레킹도 코스는 물론이고 역사적인 볼거리도 많아 즐거웠습니다.”

트레킹을 시작한 지 2시간 30분이 지난 뒤, 한강명산트레킹의 마지막 도착지인 장충단공원에 도착했다. 김영수 크리에이터는 “대부분 장충단공원하면 장충단비를 생각하시는데 여기 수표교도 유명한 유형문화유산이에요”라며 “원래 청계천에 있던 다리인데 공사 때문에 여기로 옮겨졌어요. 수표교는 단순한 다



리가 아니고 수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다리 밑 부분 기둥에 있는 눈금이 물의 높이를 잴 수 있도록 표시한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공원 입구에 있는 다리가 유형문화유산인 것도 놀랍고 수량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조기우 협회 수석부회장님. 이번 한강명산트레킹을 통해 걸으며 역사 지식도 많이 알게되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걷기는 운동화 하나만 준비하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건강에 도움되는건 물론이고 사람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해요. 앞으로도 이런 트레킹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같이 걸으며 웃고 떠들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트레킹의 매력

김영수 크리에이터와 강북구걷기협회가 함께한 6차 한강명산 트레킹은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해 11시에 마무리됐다. 제법 긴 시간 동안 트레킹을 하며 상기된 얼굴로 도착한 이들의 표정엔

뿌듯함이 묻어있었다. 행사를 마친 김영수 크리에이터는 협회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소감을 전했다.

“오늘 한강명산트레킹 코스는 문화유산을 좋아하거나 답사 여행을 즐기는 분들에게 특히 좋았을 것 같아요. 도심에서 10분, 15분만 투자하면 이렇게 서울 시내의 탁 트인 전망도 보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이렇게 가볍게 걸으며 생각도 정리하고 풍경도 보며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다채로워지면 좋겠어요.”

김준기 협회장은 “오늘 트레킹을 통해 걷기의 재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김영수 선생님과 협회원들 덕분에 또 하나의 추억이 생긴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라고 전했다.

트레킹은 등산보다는 가볍고, 산책보다는 진하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며 자연과 시간을 느끼며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 운동이 처음이라 고민인 사람도, 건강이 좋지 않아 어떤 운동을 할지 고민인 사람도 모두 환영이다. 거창한 준비물은 필요 없다. 이제 운동화만 챙겨 문밖으로 나설 때이다.

서울시청 펜싱팀과 만난
펜싱동호회 칼잡이길드

맞 닿 은 검 으 로 하 나 된 마 음

'검으로 싸우다'라는 뜻의 펜싱(Fencing). 마스크로 표정을 숨기고 오직 검으로만 승부를 결정짓는 이들의 모습에선 형용할 수 없는 아우라를 느낄 수 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당당히 은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온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펜싱팀 (이하 서울시청 펜싱팀) 선수들과 직접 칼을 맞대기 위해 찾아온 펜싱동호회 칼잡이길드 회원들의 만남을 확인해 보자.

글. 임재홍 사진. 황지현



서울스포츠 2024 NOV + DEC

펜싱으로 만난 이들

전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2024 파리올림픽. 서울시청 펜싱팀은 윤지수, 전하영 선수를 필두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여자 사브르 단체전 은메달을 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였다. 이런 서울시청 펜싱팀을 만나기 위해 펜싱동호회 칼잡이길드가 서울 울즈원펜싱트레이닝센터에 모였다. 이제 창단한지 1년 남짓 된 칼잡이길드는 펜싱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칼잡이길드의 창단 멤버인 원준상 씨는 처음 동호회가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평소 펜싱에 관심이 있어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서현 코치를 만나게 됐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펜싱을 즐기고 싶어 칼잡이길드를 만들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선수 활동을 했다고 밝힌 이서현 코치. 그녀는 현재 동호회를 이끌며 코칭도 겸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칼잡이길드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지게 된 계기에는 그녀의 별명이 관련돼있다고 한다. “제가 펜싱을 하다 보니 별명이 칼잡이였어요. 그리고 보통 펜싱 동호회나 학원들은 이름에 클럽이 들어가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같이 즐기자는 의미로 게임처럼 길드라는 단어를 넣어 ‘칼잡이길드’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됐어요.”

펜싱을 시작한 지 1년 됐다는 이정연 씨는 2023 아시안게임에서 펜싱경기를 보고 반해 무작정 배울 곳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녀는 “첫 펜싱을 칼잡이길드와 함께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쪽 같이하고 있습니다”라며 동호회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미지 씨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펜싱에 대해 설명했다. “펜싱하면 우아하고 예쁜 운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선 강도 높은 체력훈련이 필수라 초반에 그만두는 분들도 많아요. 어느 정도 체력이 쌓이고 본격적으로 펜싱을 배우면 같이 대회도 나가며 재밌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겪어보는 선수들의 삶

“동호회 대회 참가자 수가 눈에 띄 정도로 늘었고 주변에 펜싱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혹시 선수들도 이런 인기를 실감하시지는지도 궁금해요.” 높아지는 펜싱의 인기를 실감하는지 궁금했다는 이미지 씨.

이에 윤지수 선수는 “아무래도 올림픽에서 성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 펜싱클럽에 레슨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관심에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며 겸손하게 답변했다. 펜싱을 주제로 선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칼잡이길드 회원들. 본격적인 연습에 앞서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시작됐다. 어떤 종목이든 시작 전에 몸을 충분히 풀어야 다치지 않는다는 전희숙 감독. 펜싱을 좋아해 먼길을 달려온 칼잡이길드 동호회원들과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펜싱 동작들을 점검해볼게요!”

서울시청 펜싱팀 이성용 코치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흠어지는 선수들과 동호회원들. 펜싱의 기초 자세인 마르쎬(Marcher_전진하는 동작), 롬페(Romper_후퇴하기), 팡트(Fente_찌르기 동작) 연습이 이어졌다. 동호회원들 또한 펜싱을 1년 이상은 배워왔기 때문에 능숙하게 동작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체력은 기본이고 하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상체도 안 무너지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동작들에 어느새 동호회원들의 얼굴엔 땀이 흘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같이 자세를 점검하며 잠시나마 선수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는 칼잡이길드 이지현 씨.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이내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기본기를 연습할 땐 뒤꿈치를 붙이는데 실제 경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고민을 털어놓은 그녀에게 박지희 선수는 진심으로 답했다. “선수들은 시합할 때 뒤꿈치를 절대 붙이지 않아요. 뒤꿈치를 들고 있어야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잔발 같은 스텝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올림픽이나 다른 대회를 보셔도 선수들은 모두 뒤꿈치를 들고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실전이다

몸도 풀고 선수들에게 1:1 코치도 받았다. 이제 남은 건 실전뿐. 연습경기를 위해 보호구를 착용하는 칼잡이길드 회원들의 얼굴엔 비장한 기운이 서렸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전하영 선수와 연습경기를 하게 된 원준상 씨는 “제가 언제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연습을 해보겠어요. 좋은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프레, 알레!(Pret_준비, Allez_시작)”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구호에 맞춰 마침내 연습경기가 시작했다.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원준상 씨. 하지만 전하영 선수는 여유롭게 검을 받아치며 점수를 따기 시작했다.

“검을 더 높게 들고! 간격을 잘 채고 들어가야지!” 어느새 원준상 씨를 코치하며 조언하기 시작한 전희숙 감독. 호흡을 고르고 자세를 고쳐잡은 원준상 씨는 간발의 차이로 전하영 선수의 팔 끝을 스치며 소중한 1점을 따냈다. 기쁨에 포효하는 원준상 씨에게 전하영 선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 공격처럼만 하면 상대가 누구든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 느낌을 잊지 마세요!”



“

펜싱은 신체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불안하거나 긴장한 모습을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멘탈이 가장 중요해요.

”



평소라면 포옹이

곧이어 이지현 씨와 이미지 씨도 연습경기를 시작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프로 선수와의 경험치 차이를 느꼈다는 이들은 오늘 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성장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진 이서현 씨와 박지희 선수의 연습 경기. 서로의 가드를 검으로 가볍게 터치하며 경기를 시작한 이들은 이내 치열하게 점수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확실히 자세가 좋고 스피드도 빨라요. 선수 출신이라는 게 눈으로 보여요” 경기를 지켜보던 서울시청 선수단은 이서현 씨의 움직임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막상막하로 이어지던 경기는 박지희 선수의 마지막 공격으로 마무리됐다. 연습경기를 마친 이서현 씨는 “선수들과 검을 섞는 건 오랜만이라 긴장도 됐지만 막상 하다 보니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진심은 통하는 법

동호회 회원들이 펜싱을 대하는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는 박지희 선수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배우려는 모습을 보며 평소에 펜싱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저한테도 흔치않은 경험이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라며 소감을 남겼다.

이지현 씨는 “동호회를 통해서만 펜싱을 배우다 보니 플레이 스타일에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서울시청 선수들과 이야기하며 다양한 스타일의 펜싱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이미지 씨는 박지희 선수와 연습경기를 한 소감을 말했다. “펜싱은 연결 동작이 중요하데 박지희 선수에게 타이밍이나 자세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어요.”

윤지수 선수는 펜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라고 전했다. “펜싱은 신체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불안하거나 긴장한 모습을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멘탈이 가장 중요해요.” 또한 펜싱에 진입장벽을 느껴 도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펜싱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그동안 몰랐던 또 다른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서울증산초등학교 피구팀 피구로 뭉친 우리들

어린 시절, 체육시간 단골 종목이었던 피구. 두 진영 사이를 가로지르는 공과 함께 웃고 즐기다 보면 어느새 피구에 푹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협동심부터 책임감까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피구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자.

글. 임채홍 사진. 신현균

뭉치면 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3연패

“모두 정렬. 체력훈련부터 시작하자!” 완전한 가을이 된 10월, 서울증산초등학교(이하 증산초) 피구팀은 토요일 아침 9시부터 훈련을 위해 체육관에 모였다. 4학년부터 6학년 남학생들로 구성된 증산초 피구팀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훈련을 진행한다. 오늘 훈련 역시 13년간 증산초 피구팀을 이끌어온 김영범 감독의 지도하에 시작됐다.

“사실 주말 훈련에 강제성은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저도 피구에 진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말에도 모여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학교와 학원을 다니며 공부에 지쳐있던 아이들에게 피구는 어느새 하나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았다. 운동이 주는 기분 좋은 피로감과 팀으로 승리를 따냈을 때의 기분은 무엇보다 큰 즐거움이라고 아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피구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피구는 공격과 수비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만약 공격 능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수비와 패스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피구의 매력이에요.”

서울증산초 피구팀은 2012년에 창단해 올해로 13년 차가 됐다. 당시 6학년 학년부장을 맡고 있었던 김영범 감독은 학생들 사이에 있던 크고 작은 다툼을 운동으로 건강하게 해결하기 위해 피구팀을 만들었다.

“학생들이 피구를 통해 학교생활을 더 잘하는 것을 보람이라 여기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거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증산초 피구팀은 2024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남자초등부 피구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스포츠 2024 NOV + DEC

2022년부터 올해까지 3연패를 달성한 증산초는 이미 서울에 선 잘 알려진 피구 강팀이다.

“3년 연속 1위를 하다 보니 피구부원들의 자부심이 대단하고 고학년들은 1위를 지키는 것이 전통이라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작년엔 체육관 공사 때문에 인근 학교 체육관을 빌려 연습할 정도로 연습 환경이 어려웠어요. 그렇게 모두가 고생하며 연습을 이어갔고 서로를 믿고 의지한 덕분에 1위를 차지해서 더 기뻐던 기억이 있어요.”

팀스포츠크로 배우는 책임감

고단했던 체력 훈련을 마치고 시작된 패스 훈련. 김영범 감독의 지시가 떨어지자 아이들은 익숙하게 2인 1조로 짝을 이뤄 패스를 주고받았다.

“패스가 가장 중요해요. 축구의 드리블처럼 피구는 패스를 잘 해야 모든 게 시작돼요. 그래서 패스를 포함한 기본기를 잘 다져야 전술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처음 모였을 때만 해도 장난기 가득했던 아이들의 얼굴엔 어느새 진지함이 묻어 나오고 있었다. 뒤이어 시작된 수비&공격 훈련. 매트릭 벽 삼아 감독님이 던지는 공을 아이들은 온몸으로

받아냈다. 수비 훈련이 가장 재밌다는 4학년 서원규 학생은 날아오는 공을 잡을 때 몸에 착 감기는 짜릿함이 좋다고 말했다.

기본기를 다졌으니 이젠 전술 훈련을 할 차례. 감독의 지시 아래 블록 훈련이 시작됐다. 피구 특성상 공을 놓치면 바로 상대팀의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어지는 모의연습에선 실제 경기처럼 대형을 갖추어 공격·수비·블록 연습이 진행됐다.

“아이들과 훈련할 땐, 피구를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아 어떤 역할이든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훈련의 마지막은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연습게임. 2팀으로 나뉘어 실전처럼 시합을 진행됐다. 연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지하게 임하는 아이들. 하지만 곧 감독님의 휘슬에 경기는 잠시 중단됐다. 아이들을 코트 가운데로 모은 김영범 감독은 “지금 자기 위치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기기 위해서 팀원과 상대팀의 포지션을 보고 생각하며 움직여야 한다”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누구보다 이기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감독님의 조언을 복창하며 다시 연습게임에 돌입했다. 때로는 주먹을 불끈 쥐 정도로 좋아하고, 때로는 머리를 쥐어뜯고 아쉬워하기도 하며 주말 훈련이 마무리됐다.

몸치면 한다



“아이들과 훈련할 땐, 피구를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아 어떤 역할이든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영범 감독



더 높은 곳을 향해

6학년 정재하 학생은 친구들이 피구팀 활동을 하는 게 재밌어 보여서 시작하게 됐다. 자신만만한 얼굴을 한 그는 “공을 던질 땐 힘을 빼야 하는 게 포인트예요”라며 “피구를 잘 몰랐을 땐 힘을 잔뜩 주고 던지다 보니 공이 바닥에 내려뚫혔거든요. 이제는 힘 조절을 잘해서 원하는 대로 던질 수 있게 됐어요”라며 실력을 자랑했다.

수비가 특기라는 김민준 학생은 4학년 때 담임선생님으로 김영범 감독을 만나 6학년인 지금까지 피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님은 평소에 저희들에게 정말 잘해주세요. 가끔 훈련할 때 장난치거나 집중을 못 하면 혼나기도 하지만 감독님 덕분에 피구를 시작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올해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우승한 증산초등학교는 11월 경기도 오산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진출할 자격을 얻었다. 전국의 강호들이 모두 모이는 만큼, 아이들의 각오는 남달랐다. 지난 3년간 교육감배 대회 3연패를 함께 한 나우성 학생은 팀의 수비수로서 상대팀의 모든 공을 잡아 우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4학년 때 증산초로 전학을 와서 피구를 시작했다는 이시준 학생은 “모든 경기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증산초등학교를 우승으로 이끌고 싶어요”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피구를 통해 책임감과 협동력을 배운 아이들은 무엇보다 노력했을 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감독과 같이 있기만 해도 든든한 팀원들과 함께 대회를 나간 이 순간들은 앞으로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스포츠와 공정성



스포츠는 공정경쟁의 대명사다. 하지만 현재 스포츠계에는 성평등,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부 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성 관련 이슈가 많다. 그 이유를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자.

글: 김주혁



출처: TV 캡처, IOC 홈페이지

스포츠 성평등은 미완성

2024 파리올림픽은 성평등 올림픽으로 평가받는다. 사상 최초로 출전 선수 성비가 같다. 1896년 1회 아테네 올림픽 경기에 여성들이 참가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다. 그렇다고 성평등이 완벽하게 실현된 올림픽이라는 것은 아니다.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감독·코치 중 여성은 25%에 불과하다. 비치발리볼 등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일부 유니폼이나, 성별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방송 해설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남성 특징인 XY 염색체를 지닌 여성 선수의 성별 논란도 있었다. 연봉과 상금 등 성차별과, 여성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 성별 고정관념도 존재한다.

트랜스젠더 여성과 공정성 논란

근래 들어 사이클, 수영, 역도, 골프 등 트랜스여성 선수들이 여자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성전환 선수의 경기 참가를 불허하다가 2004년 성전환 수술 시행과 최소 2년 호르몬 치료 등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 이후 2015년엔 수술 조건을 삭제했으며 2021년엔 남성호르몬 혈중 농도 등 기준마저 폐지했다. 테스트스테론 수치만으로 경기력 우위를 단정할 수 없고, 성전환이 경기력 우위로 이어졌다는 경험적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대회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IOC 입장이다. 이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트랜스여성 선수의

출전 자격은 종목별 국제연맹(IF)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미국의 비수술 트랜스여성 리아 토머스는 2022년 3월 미국대학선수권 여자 자유형 500야드(487.2m)에서 우승했다. 이전 남자대회에서 400위권을 기록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성적으로 불공정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제수영연맹은 그해 6월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 규정을 변경,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거나 12세 또는 태너가 제시한 사춘기 발달 단계 2단계 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남자·오픈부' 경기에 출전하도록 했다. 토머스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그 외에도 종목별로 기준 강화조치가 잇따랐다. 국제사이클연맹은 수영과 같은 기준을 마련했고, 월드레비와 세계육상연맹 등은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출전을 허용했다. 국제빙상경기연맹은 트랜스여성은 혈청 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리터당 2.5나노몰 미만으로 1, 2년 유지해야 여자 싱글 종목에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토미 룬드베리 등 스포츠 생리학 연구자 26명은 공동 연구를 최근 발표해 "남성으로서 테스토스테론에 노출된 데 따른 각종 신체적 이점은 성전환 후 호르몬 요법을 받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며 "성전환 선수를 여자부에 출전시키는 IOC의 조치는 공정성이나 선수들의 안전과 공존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강원도민체전 사이클 여자부 경륜 등에서 금메달 2개 등을 따낸 트랜스여성 나화린 선수는 트랜스젠더를 제3의 성별로 구분해 경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승마와 보치아(공 던지기 장애인 경기)는 선수의 성별 구분 없이 경기를 치른다. 그 밖의 스포츠 종목은 성별을 나눈다. 격투기 등 힘을 쓰는 종목은 체급도 나눈다. 성별이나 체중에 따라 능력 차이가 있기에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남녀 경기력 차이는 종목에 따라 다르다. 육상 100m 여자 세계기록은 10초49로 남자의 9초58에 훨씬 못 미친다. 반면 파리올림픽 양궁 예선에서 여자 1위인 임시현의 기록(694점)은 남자 1위 김우진(686점)보다 높았다. 이처럼 리듬체조·수중발레 등 여성적인 종목이 있고, 격투기·구기 등 남성적 종목이 있으며, 양궁·볼링 등 중립적 종목도 있다. 트랜스젠더나 XY 염색체 여성의 인권과 성 정체성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공정성은 유지돼야 한다. 종목에 따라 남녀 경기력 차이가 다른 만큼 종목별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자부든 오픈부든 출전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금 연봉 성차별

스포츠에서 상금 및 연봉 성차별은 과거 극심했다. 하지만 여성 스포츠의 성장과 더불어 현재는 완화되는 추세다. 1973년 빌리진 킹의 성 대결 승리를 계기로 테니스를 비롯해 육상·수영·사이클·양궁·스케이팅 등 상당수 종목이 이제는 남녀 동일 상금을 지급한다. 축구와 골프 등 일부 종목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2023년 US 오픈 골프 우승상금은 남자가 360만 달러로 여자 200만 달러의 1.8배다. 스폰서 티켓 중계권료 등 대회 총수입은 남자가 1억 6,500만 달러로 여자 4,500만 달러의 3.7배다. 남녀 우승상금 차이는 성차별일까, 아니면 시장 논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까. 국내 배구 평균 연봉은 남자가 여자보다 38% 많다. 그러나 관중 수와 시청률은 여자부가 훨씬 높다. 스포츠는 남자들의 영역이고 남자들이 더 받아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연봉이나 상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스포츠에서도 성별 고정관념을 없애고, 남녀 누구나 눈치 볼 것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성평등을 추구하되 남녀 간 근거 없는 차별은 시정하고 근거 있는 차이는 일정부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성정체성과 인권은 존중하되 모두가 참여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국내 남녀 프로배구 비교

	남	여	
평균 연봉	2억 2,300만 원	1억 6,100만 원	
최고 연봉	10억 8,000만 원 (한선수)	8억 원 (김연경, 강소휘)	
샐러리 캡 (팀 연봉총액 상한)	58억 1,000만 원	29억 원	
23~24 리그	총 관중수	25만 1,498명	33만 5,016명
	평균 시청률	0.56%	1.22%
	경기 수	132경기	132경기

출처: 한국배구연맹 보도자료

글을 쓴 김주혁은 미디어파인 논설위원이자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로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초빙교수를 지낸 폭력예방과 양성평등 관련 전문가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UN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ESG 경영의 도입과 확산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글: 김진국



(CUT YOUR CARBON)자전거를 이용한 경기장 방문 장려
출처: 월드컵대회 홈페이지(2024)



K LEAGUE 압박스 스테이션
출처: K리그 어시스트 홈페이지

지구온난화의 시작과 스포츠 ESG

지구 온난화의 시작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화와 글로벌 산업화와 관련이 있다. 국가 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내수시장에 머물던 시장이 세계 시장으로 확장되어 대기업들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판매하기 위해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 경영의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환경은 점점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얼마 전부터 ESG 경영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ESG 경영이라는 용어는 바로 1980년대 세계화가 시작된 이래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대두되었고,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기업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UN은 2000년에 UN Global Compact(UNGC)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정책 수립의 준비를 시작하였고, 2006년에 원활한 ESG 경영 정책의 시행을 위해 책임투자원칙을 발표했다. 이때 UN PRI(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가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원칙을 제공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구축이 되었다. 이 시기에 ESG 경영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다.

한편 2004년 전 UN 사무총장 코피아난은 연설을 통해 스포츠가 보편적인 언어로서 출신, 배경, 종교 혹은 경제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UN 총회 결의문에서는 스포츠가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ESG와 연계성이 높음을 인정하였다. 일례로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 세계 팬들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고, 조직위원회 등의 기구들 역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해당 요인을 반영하는 추세다. 스포츠계 역시 ESG와 관련된 사안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 일조하기 위한 노력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스포츠와 ESG의 해외 사례

먼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24 파리올림픽은 환경 보호를 중시하며, 다양한 친환경 전략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올림픽 선수촌은 8층 미만의 모든 건물이 목재와 유리로 만들어지고 모든 에너지가 히트 펌프와 재생 에너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구역이다. 또한 이번 올림픽을 위해 건설된 아디다스 아레나(Adidas Arena) 등 두 곳의 경기장은 1만 1,000석에 달하는 관중석을 모두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었다. 이 관중석을 만들기 위해 약 100톤 가량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쓰였다. 또한 월드컵 테니스 대회 역시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대회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컵을 도입했고, 경기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분리하고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대회에 사용되는 물류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경기장 방문을 장려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포물러 E’는 전기차로 진행되는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로, 친환경적인 모터스포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기에 사용하는 모든 차량은 전기차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고,

2020년부터 ‘포물러 E’는 모든 경기에서 탄소 배출을 상쇄하고, 경기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시행 중이다.

이와 같은 해외 사례들은 스포츠 이벤트가 환경을 고려한 운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양한 조직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스포츠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스포츠와 ESG의 국내 사례

국내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친환경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로, 다양한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을 도입했다. 경기장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경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일부 경기장은 임시 건물로 지어, 대회 후에 철거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또한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대규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해 대회 운영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였다.

또한 한국 프로축구 리그(K리그)는 친환경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스포츠 이벤트를 추구하고 있다. 일부 경기를 ‘에코 매치’로 지정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관중들에게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며, 팬들과 함께하는 환경 보호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 마라톤 대회는 대규모 참가자와 관중을 대상으로 친환경 경영을 도입했다. 대회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컵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제공하거나, 친환경 소재로 만든 물품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경로를 따라 설치된 쓰레기통과 재활용 안내를 통해 대회 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중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권장 중이다.

스포츠와 ESG의 시사점

이처럼 스포츠도 조직이나 이벤트 특성에 맞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설정하여 실행 중이며, 이는 지구 환경의 보존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스포츠는 팬, 지역사회 및 국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이를 통해 스포츠 참여자들에게도 환경의 중요성과 ESG 인식을 널리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글을 쓴 김진국은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스포츠산업연구실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산업 정책과 스포츠 조직 경영, 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 ESG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스포츠계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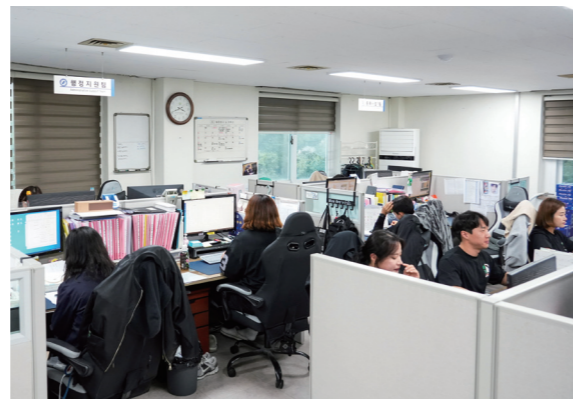
화합과 믿음으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강남구체육회

매년 수천 명이 모이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와 강남구민화합 축제를 필두로 강남구체육회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보다 좋은 환경과 시설에서 구민들이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내·외부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강남구체육회의 노력을 함께 알아보자.

글. 임채홍 사진. 황지현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

강남구체육회는 42개 종목 427개 클럽, 2만여 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구민들이 지친 삶 속에서 체육을 통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허대무 회장은 동호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 개선에 힘쓰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남구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허대무 회장을 만나다.

Q. 회장님은 강남구체육회 이전에도 축구 선수, 유소년 축구단 단장, 강남구 축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시며 체육계와 인연이 깊은데요.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스포츠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A. _____ 예전에 축구 선수로 생활할 때는 제가 단순히 축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다양한 종목을 경험하고 직접 참여도 해보니 제가 스포츠 자체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쟁할 때 나오는 에너지나 열정이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정 덕분에 지금도 동호인 축구 대회나 전국 대회에도 선수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Q. 강남구체육회를 이끌어가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철학은 무엇인가요?

A. _____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종목이든 엘리트(선수) 출신과 생활체육 출신 간의 입장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서로 한 발짝씩만 양보하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양쪽 의견도 듣고 최대한 중도점을 찾아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강남구체육회만큼은 내부적으로 갈등도 줄어들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Q. 강남구체육회엔 클럽의 종류도 다양하고 참여하는 구민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종목별 클럽들이 더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_____ 많은 분들이 축구, 농구, 테니스와 같은 종목만 인기가 있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다트, 라인댄스, 파크골프, 체스, 브리지 등 다양한 스포츠를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생활스포츠 육성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종목별로 자체대회와 외부 대회를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강남구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다양한 대회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정도는 어떤가요?

A. _____ 강남구의 대표적인 체육행사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강남구민화합축제는 강남구 24개동 주민들이 모여 단체 운동에도 참여하며 서로 화합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음은 국제평화마라톤대회입니다. 올해는 8천 명을 모집했는데 신청자가 1만 3천 명이 넘으며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양재천을 따라 뛰는 아름다운 코스와 참가비 전액을 기부하는 취지가 어우러져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Q.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강남구체육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A. _____ 무엇보다 유능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근속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각자 맡은 업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특성상 예산이나 지원이 비교적 큰 편이어서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강남구체육회의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A. _____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남구의 운동 시설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남구체육회가 자립력을 키우는 것이 강남구체육회가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도 강남구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남구체스연맹

체스의 모든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 동네 체육 대전



강남구체스연맹은 체스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공간을 제공한다.
 유소년 국가대표부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까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강남구체스연맹 회원들을 만나보자.

글. 임채훈 사진. 신현균

하나의 문화이자 전장터

지난 2월, 강남구체육회에 정식종목 단체로 가입한 강남구체스연맹의 10개 클럽에 서는 현재 2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남녀노소 모두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체스의 장점 덕분에 회원들의 연령대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임현주 강남구체스연맹 회장은 체스를 가리켜 하나의 문화이자 전장터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체스는 기물 하나하나가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플레이어는 기물들의 역할을 생각하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팀워크와 책임감에 대해 배우게 돼요”라며 “체스의 모든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고도 생각해요”라고 전했다.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책임지는 것이 스포츠라고 생각한다는 임현주 회장은 체스의 장점으로 편의성을 강조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 같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곧 한국에서도 체스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현재 체스는 아시안 게임 같은 국제 대회에 정식종목으로도 채택되며 인기가 계속 늘고 있어요. 세계체



스연맹(FIDE)은 올해 100주년을 맞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협회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도 체스 인기가 늘어나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강남구체스연맹의 문턱은 굉장히 낮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엔 체스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무실로 들어올 수 있다. 만약 체스에 관심이 있거나 배우고 싶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네이버 밴드를 통해 문의도 가능하다. 바둑의 기원처럼 체스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체스연맹의 목표 중 하나라고 한다.

하지만 본인의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세계적인 레벨에서 체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도 강남구체스연맹이다. 현재 강남구체스연맹은 가장 많은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초 IM(International Master) 안홍진 선수와 CM(Candidate Master) 이경석 선수와 함께하고 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와 유소년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럼 회원들이 생각하는 체스의 매력은 무엇일까? 올해 5학년인 홍주혁 회원은 6살 때부터 체스를 접했다고 한다. “보드게임을 좋아해서 체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상대 수를 예측하고 대응법을 찾아가는 게 체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옛뎀 보이는 얼굴로 수줍게 체스의 매력을 말한 홍주혁 학생은 지난 유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한 어엿한 국가대표다. 특히 피부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체스가 재밌을 것이라며 추천하기도 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체스 국가대표

서클스포트 2024 NOV + DEC



로 우리나라를 빛낸 이경석 선수는 체스의 차분한 매력에 대해 설명했다. “축구나 농구처럼 동적인 운동도 있지만 체스처럼 정적인 스포츠도 있는 거죠. 머리 쓰거나 전략 세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가볍게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체스는 정직한 스포츠라고 생각한다는 고등학교 2학년 홍주는 학생은 “운도 들어 가지만 연습하고 공부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게 체스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세운 전략이 경기에서 통할 때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상 전략이 통하는 건 아니라는 그녀는 “제가 체스를 좋아하는 만큼 졌을 때의 상실감도 굉장히 커요. 상대방이 잘했든, 제가 실수했든 게임을 지면 한 달 동안은 그 경기 생각을 해요”라며 체스에 대한 진심을 전했다.

우리 동네 체육 대장

더 큰 목표를 향해

올해 6월, 강남구체스연맹은 남수단체스연맹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_양해각서)를 맺었다. 오랜 내전으로 체스를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체스기물세트 100개와 여러 의약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런 남수단과의 인연은 놀랍게도 홍주는 학생의 세뱃돈으로부터 시작했다. “남동생 덕분에 남수단 소년병들이 총을 반납하면 축구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체스 선수니까 체스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우선 제 세뱃돈으로 5개의 체스세트를 남수단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남수단과의 인연을 우연히 IOC 위원들도 알게 되어 현재는 MOU까지 맺게 됐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다는 홍주는 학생의 꿈이 체스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루어진 것이다.

건강한 체스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임현주 회장은 강남구체스연맹의 2가지 목표를 밝혔다. “첫 번째 목표는 대한민국의 첫 GM(GrandMaster) 탄생이에요. 우리나라가 체스 강국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강남구체스연맹 선수들의 실력을 믿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원들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보여준 그녀는 다음 목표를 설명했다. “두 번째 목표는 국제체스대회 유치입니다. 우

리나라는 아직 국제 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없어요. 온가족 체스대회, 전국 스탠다드 대회 같은 국내 대회를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언젠간 꼭 국제 대회를 유치하고 싶어요.”

강남구체스연맹 회원들은 마지막으로 체스를 망설이고 있는 이들에게 ‘같이 즐기자’라고 전했다.

“강남구체스연맹은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체스를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거나, 잘하거나, 잘하고 싶은 사람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와 같이 체스로 하나 되어 소통하고 재밌는 경험 많이 쌓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도, 지역도, 선수도 최고”

임현주 강남구체스연맹 회장

체스는 오롯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승패가 결정 나는 스포츠입니다. 때론 잔인하기도 하지만, 실패를 경험하며 점점 단단해지는 자신을 볼 수도 있어요. 국내 체스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부족할 수 있지만 머지않아 상당한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미래에 우리 강남구체스연맹이 앞장서서 이끌어 줄 수 있는 선봉대 역할을 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해요”

안홍진 회원

제가 우리나라 첫 IM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체스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체스를 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많은 상황을 접해보는 겁니다. 최대한 좋은 수나 좋은 포지션을 많이 접해보자 나중에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강남구체스연맹 소속으로 좋은 성적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취미로 추천해요”

이경석 회원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체스를 접했어요. 마냥 재밌어서 시작한 체스인데 지금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나갈 정도로 진심입니다. 저는 계획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승리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내는 재미가 체스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평소 전략적인 게임이나 머리 쓰는 퀴즈를 좋아한다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취미로 체스를 추천합니다.



“체스는 친구 같은 존재”

홍주은 회원

현재 중학교 2학년이고 3년간 유소년 국가대표로 활약해 왔습니다. 체스는 제게 친구 같아요. 친한 친구라면 평소에 티격태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평소엔 정말 좋아하지만 제 생각대로 안 돼서 지면 속상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존재예요. 강남구체스연맹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대회도 많이 개최하고 체스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열어주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활 스포츠의 꽃, 수영의 매력을 알리고파

서울특별시 수영연맹 동미숙 회장

수영은 생활스포츠 중 가장 인기가 많을 정도로 접근성과 재미를 가진 종목이다. 날이 수영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더 좋은 시설과 수질로 보답하고 싶다는 서울특별시 수영연맹 동미숙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글. 임채홍 사진. 신현균

Q. 서울특별시 수영연맹과 회장님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_____ 서울특별시 수영연맹은 18개 자치구 수영연맹과 더불어 생활체육 동호인 및 전문 체육 선수의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수영연맹은 지난 2021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10연패를 달성하며 최고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스포츠 단체에 있지는 않았지만 딸이 중학생 때 소년체육대회에 나가 펜싱으로 은메달을 따며 자연스럽게 스포츠에 관심이 생겼고,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쉽없이 노력하는 스포츠의 매력을 알아가다 보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Q. 회장님은 코로나19가 가장 심했던 2021년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스포츠계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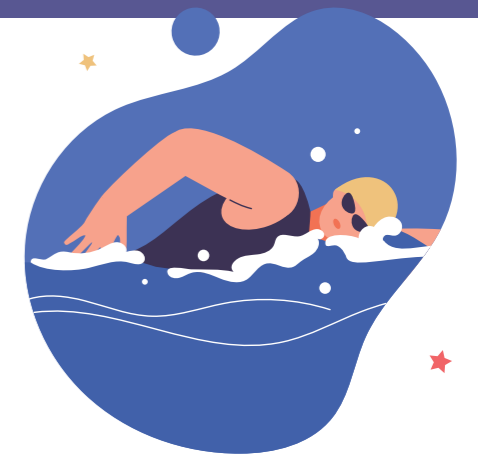
A. _____ 당시 많은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힘들었지만 특히 어린 선수들의 상황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운동하러 모일 수도 없고, 외출 자체가 어렵다 보니 마음만 급하고 훈련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팬데믹 시기가 길어지면서 수영장도 폐쇄되고 지원도 못 받다 보니 어린 선수들 중에는 아예 진로를 바꾸는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영 외적인 요인들로 좋은 선수들을 놓치는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의지가 있는 지도자와 선수들이 버텨준 덕분에 지금까지 수영연맹이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힘든 시기를 같이 겪고 버틴 분들에게는 아직도 애뜻하고 남다른 애정이 남아있습니다.

Q. 수영은 오랜 기간 꾸준히 사랑받은 스포츠입니다.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수영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A. _____ 물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번씩은 수영을 접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그 매력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쿠아로빅이라고 물에서 하는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격한 스포츠가 어려운 장년층들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관절이나 근력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건강 운동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수영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Q. 수영연맹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10연패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A. _____ 2021년에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 걱정이 많았는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종합우승으로 10연패를 달성하며 당시의 어려움이 모두 씻겨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한 2021년 전국체육대회 MVP로 선정된 현 국가대표 황선우(당시 서울체육고등학교) 선수의 활약을 발판으로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더욱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Q. 서울특별시 수영연맹을 이끌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A. _____ 지금 수영계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수영장 시설이 부족합니다. 서울에서 전문체육 수영 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워 지방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현 상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규격 수영장 건설을 위해 임기 내내 여러 현장을 찾아다니며 관계 기관에 조언을 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수영장 건설에 중점을 두지 않고 한강에 위치한 야외 수영장 보수를 통해 야외 수영 대회 개최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기 끝까지 노력할 예정입니다.

Q. 서울특별시 수영연맹 회장으로서 임기 동안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A. _____ 우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50M 수영장을 서울에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수질과 공기가 개선된 쾌적한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영연맹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영 체육인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뉴스

서울특별시체육회, 2024 파리올림픽 출전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포상식 개최

지난 9월 3일,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에서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한 포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10개 종목, 총 17명의 서울시 선수단은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종합 8위 성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은메달(윤지수·전하영)과 태권도 여자 67kg 초과급 동메달(이다빈)을 획득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올림픽에 참가하여 최선을 다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도 특별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의 서재현은 콤바인 여자 결선에서 6위에 올라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이전 도쿄올림픽보다 나은 성적으로 두 번째 올림픽을 마무리했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 콤바인의 이도현 선수와 정진희·송지영·우빛나·조은빈 등 서울시청 선수들이 대거 포함된 핸드볼 대표팀은 강호독일을 잡는 등 선전했습니다.

강태선 회장은 “올림픽에 참가하여 최선을 다한 선수단 모두가 영웅이고 승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년 2월에 열리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과 차기 LA올림픽을 위해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며, 서울시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습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서울특별시 선수단 출정식 개최

지난 9월 27일,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는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서울특별시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5년 만에 개최한 이번 출정식은 강태선 선수단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서울시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선수단 300여 명이 참석해 선수들의 결의를 다지고 힘찬 응원과 격려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전에 서울시는 48개 종목 1,453명의 선수를 파견했습니다. 특히, 2024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양궁 임시현(한국체대), 펜싱 구분길(국민체육진흥공단), 사격 양지인(한국체대) 선수와 펜싱 윤지수·전하영(서울시청), 태권도 이다빈(서울시청) 선수 등이 서울시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강태선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 선수단 모두 부상 없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후회 없이 펼치고 소중한 경험을 쌓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1일부터 일주일간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개최되어, 49개 종목 30,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서울시선수단,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3위 입상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7일 7일간의 열전의 막을 내렸습니다.

48개 종목, 총 2,105명(선수 1,453명, 임원 652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서울특별시는 금메달 107개, 은메달 95개, 동메달 118개로 종합점수 53,713점을 획득해 종합 3위에 입상했습니다. 양궁의 임시현(한국체대) 선수는 세계 타이기록을 포함해 4관왕을 차지하며 대회 MVP에 등극했으며,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던 수영의 이은지(방산고) 선수와 문수아(서울체고)가 각각 배영(200m)과 평영(2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다관왕 명세

연번	구분	종목	종별	성명	소속	메달 명세
1	4관왕	양궁	여대부	임시현	한국체육대학교	60M, 50M, 단체전, 개인전 30M(은)
2		수영	남고부	김준우	광성고등학교	자유형1500m, 계영800m, 계영400m, 자유형400m
3		수영	남고부	노민규	경기고등학교	계영800m, 개인혼영200m, 계영400m, 개인혼영400m, 혼계영400m(은)
4		수영	여고부	이은지	방산고등학교	배영200m, 배영100m, 계영400m, 혼계영400m, 계영800m(은)
5	3관왕	근대5종	여고부	신수민	서울체육고등학교	단체전(4종), 개인전(4종), 계주(4종)
6		수영	여고부	박정원	서울체육고등학교	계영400m, 접영100m, 혼계영400m, 접영50m(은), 계영800m(은)
7		수영	여고부	송재윤	서울체육고등학교	배영50m, 계영400m, 혼계영400m, 계영800m(은), 배영100m(동)
8	2관왕	양궁	여일부	한승연	한국체육대학교	50M(컴파운드)360라운드, 50M(컴파운드)720라운드, 개인전(컴파운드), 단체전(컴파운드)(동)
9		육상	남대부	장민호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	100m, 200m, 4x100mR, 4x400mR(은)
10	2관왕	근대5종	여고부	민소윤	서울체육고등학교	단체전(4종), 계주(4종)
11		근대5종	여고부	전지우	서울체육고등학교	단체전(4종), 계주(4종), 개인전(4종)(동)
12		근대5종	남고부	안지우	서울체육고등학교	개인전(4종), 단체전(4종), 계주(4종)(동)
13	2관왕	볼링	남대부	류호준	한국체육대학교	개인전, 2인조, 마스터즈(은), 3인조경기(동)

서울특별시체육회 뉴스

연번	구분	종목	종별	성명	소속	메달 명세
14	2관왕	볼링	남대부	임승민	한국체육대학교	2인조, 마스터즈, 3인조경기(동)
15		산악	여일부	서재현	서울시청	스포츠클라이밍난이도, 스포츠클라이밍볼더링
16		수영	여고부	문수아	서울체육고등학교	평영200m, 계영400m, 평영100m(동)
17		수영	남고부	이인서	서울체육고등학교	계영800m, 계영400m, 자유형100m(은)
18		다이빙	여고부	현지원	서울체육고등학교	플랫폼 싱크로다이빙, 스프링보드3m, 스프링보드1m(은), 싱크로다이빙3m(은), 플랫폼다이빙(은)
19		자전거	남고부	김태양	서울체육고등학교	도로개인독주25km, 개인도로단체
20		자전거	남고부	박태준	서울체육고등학교	개인도로단체, 개인도로
21		자전거	여일부	이혜진	서울시청	단체스프린트(시범종목), 스프린트, 경륜
22		조정	남고부	이경훈	서울체육고등학교	싱글스컬, 쿼드러플스컬
23		펜싱	남고부	최혁준	서울체육고등학교	플러레 개인, 플러레 단체

신기록 명세

연번	구분	종목	종별	성명	소속	기록
1	세계타이기록	양궁	여대부	임시현	한국체육대학교	355
2	한국신기록	수영(배영200m)	여고부	이은지	서울체육고등학교	2:08.81
3		수영(평영200m)	여고부	문수아	서울체육고등학교	2:23.87
4	대회신기록	사격(공기소총_개인)	여일부	조은별	한국체육대학교	252.2
5		사격(25m권총)	여일부	양지인	한국체육대학교	40.0
6		수영(자유형1500m)	남고부	김준우	광성고등학교	15:07.46
7		수영(배영100m)	여고부	이은지	방산고등학교	1:00.48
8		수영(혼계영400m)	여고부	문수아 외 3인	서울선발	4:07.14
9		양궁(50M)	여대부	임시현	한국체육대학교	347
10		자전거(4km단체추발)	남고부	김태양 외 3인	서울체육고등학교	4:20.097

2024 코리아오픈테니스대회, 아다드 마이아 우승

지난 9월 22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2024 코리아오픈테니스대회 단식 결승에서 베아트리스 아다드 마이아(브라질) 선수가 다리 아 카사트키나(러시아)에게 2-1(1-6, 6-4, 6-1)로 역전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코리아오픈은 WTA 250 대회에서 올해 WTA 500으로 승격되어 상금과 랭킹 포인트가 대폭 상향되었으며, 세계적인 선수들의 우수한 경기를 보러 온 테니스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만원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회원단체 뉴스

서울특별시택견회, 2024 서울무형문화축제 결련택견대회 성료

지난 9월 29일, 남산골 한옥마을 천우각무대에서 2024 서울무형문화축제 결련택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유산인 택견의 단체경기 방식인 결련택견은 지난 2022년 서울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기념하여 결련택견대회가 개최했습니다.

결련택견은 서울 지역 고유의 민속 무예 경기로 명절마다 마을 간 행하였던 전통무예 택견의 단체경기를 뜻하며, 마을을 대표하는 택견 선수가 택견 겨루기를 하고, 겨루기에서 이긴 선수가 계속해서 상대 마을의 다른 선수와 경기를 펼치는 승자연전(승리한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함) 방식입니다.

2024 서울무형문화축제 결련택견대회는 취타대에 이은 선수들의 입장식과 서울특별시택견회(회장 신창식) 대표시범단의 택견 공연으로 결련택견대회의 막을 멋지게 열었으며, 국가대표 택견시범단인 발광엔터테인먼트의 택견 공연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남자일반부 4강 대결의 최종우승은 낙산택견패 '청룡'팀이 되어 최우수 택견패 타이틀을 가져갔으며 결련택견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실력으로 멋진 경기를 보여준 선수에게 수여하는 최우수 택견꾼 트로피는 6연승을 달성하며 상대팀 택견 선수들을 모두 이겨 팀을 우승으로 이끈 박솔희 택견꾼이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11월 2일에는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의 무대에서 '제24회 서울특별시회장기 택견대회'가 서울지역 각 클럽 대항전으로 치러집니다.



회원단체 뉴스



서울특별시소프트테니스협회, 2024 소프트테니스 스타트교실 성황리에 진행 중

서울특별시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장현준)는 지난 9월 7일부터 노원구 수락산스포츠타운 소프트테니스장에서 '2024 소프트테니스 스타트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스타트교실 운영을 통해 1기 약 30여 명의 소프트테니스 동호인이 수료했으며, 현재 2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현준 회장은 "소프트테니스 스타트교실을 더 많은 시민과 동호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소프트테니스 종목의 매력을 알리고 종목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전했습니다.

구분	행사명	개최일시	장소	문의
서울특별시 소프트테니스협회	2024 소프트테니스 스타트교실	09.07.(토)~11.30.(토)	노원구 수락산스포츠타운 소프트테니스코트장	02-490-2795
	통합 제6대 소프트테니스협회장 취임식	11.09.(토)	서울특별시체육회 1층 대강당	
	제16회 서울특별시 소프트테니스협회장기 대회	11.16.(토)	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 테니스장	
서울특별시 줄넘기협회	제21회 대한민국줄넘기협회장기 전국줄넘기대회	11.16.(토)	인천 남동체육관	02-745-1008
	제16회 서울특별시장기 줄넘기대회	11.30.(토)	서울 동대문구체육관	

SSC & SSAD 뉴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뉴스

2024 서울특별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가 주최하는 '2024 서울특별시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이하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9월 11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생활체육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장애인 체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2010년부터는 자치구별 대항전으로 진행되어 서울특별시 대표 대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선수단 5,000명(자치구 선수단 3,500명, 운영진 1,500명 등)이 참가하였으며 총 19개(동호인종목 6, 화합 종목 4, 체험 종목 9) 종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화합 종목'이었던 '한궁'이 '동호인종목'으로 변경되는 등 작년 대회에 비해 종목별 경기에 대한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 동호인종목 4가지(파크골프, 보치아, 축구, 농구)는 사전대회를 통해 앞서 완료되었습니다.

개회식은 자치구별로 기수단과 함께 선수단이 입장하며 생활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만호 마술사', 'LED 브라스 밴드', '대북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으로 풍부한 개회식이 이루어지며 작년 우승 자치구였던 노원구의 우승기 반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의 대회사와 함께 안내견 '조이'와 함께 한 김예지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서강석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황재연 수석부회장과 정희영 부회장 등 여러 내빈이 생활체육대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선수들을 응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 열정 가득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동호인종목 파크골프에서는 동대문구, 보치아는 성북구에서 우승을 했고 축구는 성북구(장애인), 성동구(비장애인)가 각각 우승했



으며 농구는 노원구가 우승했습니다. 조정에는 중랑구(4인)와 영등포구(2인)가, 한궁은 동대문구가 우승을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협동심을 보여 준 화합 종목에서도 열띤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 결과 슨러는 동대문구가, 플로어컬링은 용산구가, 줄다리기는 성북구가, 스크린 사격은 금천구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2024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종합우승은 중랑구가 차지하였습니다. 작년 생활체육대회에서 아쉽게 2위를 했던 중랑구는 이번 대회 1위를 통해 기쁨을 만끽하였습니다. 뒤이어 2위는 동대문구, 3위는 송파구가 차지했습니다. 또한 종목별 경기단체(동호인종목 6, 화합 종목 4)의 추천을 통한 화합상은 강남구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황재연 수석부회장은 "25개 자치구가 한자리에 모여 대회를 이루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경쟁을 떠나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 주었던 모든 선수들의 모습이 감명 깊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더 많은 선수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서울스포츠 2024 NOV + DEC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뉴스



23번째 구지회 인준 승인 '동작구 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가 지난 9월 23일 동작구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서울특별시 23번째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동작구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 체육 관련 사업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체육 발전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2024 코리아휠체어믹스더블컬링리그' 서울시청 우승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이천 선수촌 컬링장에서 열린 '2024 코리아휠체어믹스더블컬링리그(플레이오프)'에서 서울시청A 휠체어컬링팀(정준호, 김혜민)이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2개 팀이 출전하였으며 1위는 서울특별시청 A, 2위는 한건KDN, 3위는 창원시청이 하였습니다.

2024 파리패럴림픽 참가 선수단 격려 간담회 개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장)이 지난 10월 14일 서울시청에서 '2024 파리패럴림픽'에 참가한 서울특별시 선수단 19명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린 '2024 파리패럴림픽'에는 대한민국 선수 총 177명이 17개 종목에 참가하여 5개 종목에서 메달 총 30개(금6, 은10, 동14)를 획득하였으며 그중 서울시청 및 서울시 소속 선수단 22명은 6개의 메달(금1, 은1, 동4)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날 격려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탁구 남자 복식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장영진 선수로부터 선수단 사인이 담긴 '2024파리 패럴림픽 포스터 액자'를 받고, 화답의 의미로 선수단들에게 '서울굿즈 꾸러미'를 전달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패럴림픽 영상을 보면서 선수 여러분이 경기에 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감동이 앞섰고, 서울시민에게 꿈과 희망, 노력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스포츠>를 읽으면 선물이 따라 겨울!

Quiz event!

<서울스포츠> 11+12월호만 읽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풀어 주세요.



1.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는 서울 명산을 선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생활체육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서울의 모습을 보며 운동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전국트레킹대회 ② 평화트레킹대회 ③ 댕댕트레킹 ④ 한강명산트레킹

2. 지난 10월, 서울특별시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107개, 은메달 95개, 동메달 118개를 획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몇 등을 했을까요?

- ① 1위 ② 2위 ③ 3위 ④ 4위

3. <서울스포츠>에는 다양한 스포츠와 그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과 동호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11+12월호에 소개되지 않은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 ① 피구 ② 씨름 ③ 펜싱 ④ 수상스키

참여 방법

<서울스포츠> 웹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정답을 제출해 주세요.

참여 기간

12월 20일(금)까지

당첨 선물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2잔을 드립니다.



웹진 바로가기